

총무로 프로듀서의 위기

박정호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의적 발상과 기획으로 총무로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주역인 영화 제작자와 프로듀서들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관객 수 감소와 제작비 상승, 비디오의 몰락과 극성을 부리는 불법 동영상 등 잇따른 악재로 희망적인 요소의 발견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영화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은 둘째 치고, 좀체 배우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요. 그래도 아이들은 말을 잘 듣잖아요.” 최근 선보인 영화 <안녕, 형아>의 제작사인 MK 픽처스의 심재명 사장이 깊은 숨을 들여 쉬었다. 심 사장 옆에는 그의 친동생이자 <안녕, 형아>의 프로듀서인 심보경 이사가 앉아 있었다. 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동생의 앞날을 걱정했다. 영화라는 한술밥을 먹는 사이지만 제작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으며 “나는, 그래도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너는 어떡하니” 그들은 씩씩하게 소주잔을 주고받았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기자의 마음도 밀로, 밀로 가라앉았다.

프로듀서들의 위기와 총무로의 현실

심재명 씨가 누구인가. 1996년 명필름 창립 작품 <코르셋>에 이어 <집속> <조용한 가족> <해피엔드> <공동경비구역 JSA> <YMCA야구단> <바람난 가족>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심 사장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를 연출했던 강제규 감독이 운영하던 영화사와 회사를 합치고, 우회 상장이란 통로를 통해 코스닥에도 상장한 상태지만 영화 만들기가 갈수록 힘겹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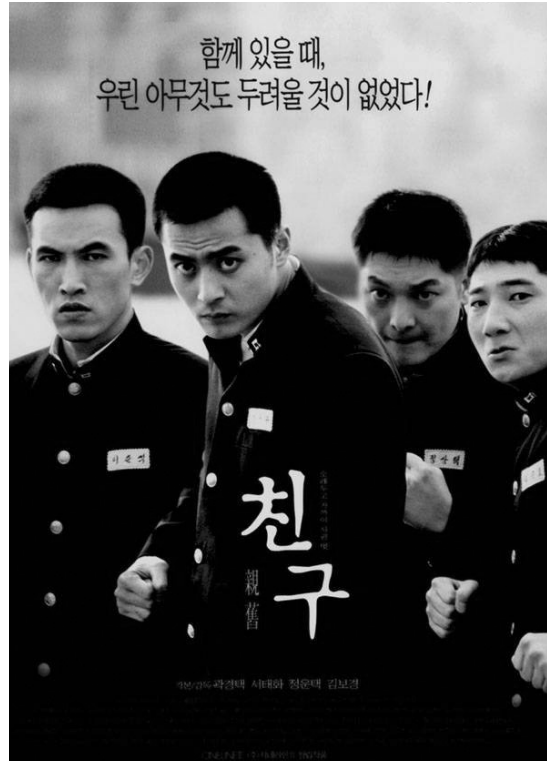
요즘 들어 영화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89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내놓으며 총무로 기획영화 시대를 열었고, 이후에도 <결혼이야기> <구미호> <은행나무침대> <편지> <약속> <엽기적인 그녀> 등을 흥행시켰던 영화사 신씨네의 신철 대표는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동물들이나 테리고 영화를 찍어야겠다” 라며 자조 섞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배우들의 급등한 개런티,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막강 파워 때문에 영화 제작자로서의 위치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의 표시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충무로의 규모와 내용을 확장해 온 프로듀서(영화제작자 포함)들이 올 들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반 관객의 눈에 보이는 영화는 감독과 배우 정도지만 제작 공정 자체로만 보면 프로듀서의 역할이 막대하다. 작품 기획부터 배우 캐스팅,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하는 프로듀서는 사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원동력이었다.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예전 권위주의 시대의 금기를 깨고, 컴퓨터 그래픽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충무로의 업그레이드는 프로듀서들의 땀과 눈물이 이뤄낸 결정체였다.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동양그룹), 롯데그룹 등 대기업 자본이 충무로에 유입되면서 한국영화의 사이즈가 커지고,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가 급증하며 영화계 자체의 인프라가 굳게 다져진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스크린 하나를 바라보며 창의적 발상과 기획으로 충무로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주역은 분명 프로듀서들이었다. 때문에 199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를 특징짓는 용어로 흔히 '프로듀서의 시대'를 거론한다. 문예물, 혹은 값싼 연애물을 주로 만들어왔던 충무로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고, 일종의 사회적 비판이 담기고, 또 할리우드에 종종 비견되는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온 데는 프로듀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충무로를 끌고 온 엔진에 비유할 만하다.

그 프로듀서들의 위기는 곧 충무로의 위기로 직결됐다. 지난 6월 벌어진 충무로 최고의 파워맨 강우석 감독과 충무로 최고의 연기와 배우 최민식, 송강호 씨가 서로 실명을 거론하며 감정싸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충돌했던 '해프닝'의 뒷면에는 바로 이 같은 프로듀서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공공의 적'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의 본업은 연출이지만 그는 90년대



곽경택 감독의 <친구>, 2001

중반 이후 시네마서비스리는 굴지의 영화 제작, 투자, 배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영화 제작사(한국에선 프로듀서와 영역이 거의 겹쳐진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 군단을 거느린 매니지먼트와 공동 제작 거부를 결의하는 등 충무로의 암울한 현실을 성토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에서다.

한국영화 추락의 원인과 분석

프로듀서, 나아가 한국영화의 추락은 올 들어 여러 부문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표면상으로 불거진 영화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의 대립은(그나마 양쪽이 현명하게도 제3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현 단계 충무로 위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병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실 최근 불거진 충무로 위기론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쉬리>로 촉발된 한국영화 열풍은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올해에도 <말아톤> <공공의 적 2> <마파도> <혈의 누> <댄서의 순정> 등이 상반기 흥행작 베스트 5을 장식했다. 시장점유율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 (270만 달러), <달콤한 인생> (320만 달러), <태풍> (350만 달러), <괴물> (470만 달러), <형사> (500만 달러) 등이 신기록을 새로 써가며 일본에 수출됐다. 익히 알려졌듯이 배용준·손예진 주연의 <외출>은 오는 9월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10개국에서 동시 개봉한다.

하지만 충무로는 속으로 끓고 있다. 무엇보다 관객 수 감소가 심각하다.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객은 전국 6,904만 명으로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 성장세 기록했다. 당연히 영화의 수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 저하가 현저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29%를 기록했던 투자·제작 부문의 이익률이 2002년 9.7%, 2003년 8.8%로 하락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제작비 상승이다. 2001년 31억 원이었던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2002년 36억 원, 2003년 45억 원으로 경증 뛰었다. 제작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관객은 반대로 줄어들었으니 산업 자체에 적색등이 켜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비디오의 몰락, DVD의 위축,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극성을 띠는 불법 동영상 등으로 영화 매출의 절대액이 극장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도 걸림돌이다. 영화 전체 시장에서 극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4%, 2002년 75%, 2003년 76%로 계속 늘어났다. 인터넷·휴대전화 등 새로운 창구가 출현했지만 아직 파급력은 미미한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2000

실정이다. DVD 매출이 극장 매출 규모를 넘어선 할리우드와 정반대 상황이다. 때문에 '원 소스 멀티 유즈'란 콘텐츠 활용 전략은 작금의 충무로에 '강 건너 불구경' 일 뿐이다. 신용카드·휴대전화 카드를 통한 극장들의 관람료 할인 경쟁도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자충수로 돌아왔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적인 요소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충무로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0~2004년 총 43개 조합, 3956억 원의 영화펀드가 조성됐지만 현재 남은 투자액은 1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선 한국영화의 마지막 보루인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시장점유율 증가를 가져왔으나 몇몇 영화의 스크린 장악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현상도 함께 초래했다"며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바야흐로 현재의 충무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그 자체에 빠진 형국이다.

한국의 프로듀서들은 지금까지 스크린을 정신병동 삼아 매진해온 반(半) 미치광이들이다.
또 그 광기가 오늘의 총무로를 만들었다. 집단적 광기를 창조적 에너지로 돌리는 주체,
그건 다름 아닌 프로듀서 자신들이다. 자,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도약의 시기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 또 위기는 기회다. 지난 10여 년
캐속 성장한 한국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다.
문제를 풀면, 아니 풀려고 노력하면 언제든지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
배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영화 고사론을 주장하며 우는
소리를 냈던 총무로가 오히려 영화 개방을 자기 체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했듯 현재의 위기는 영화계의
구조적 성숙을 향한 진통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 프로듀서(제작가) 자신들의 변화가 필요하
다. 사실 현재의 위기는 상당 부분 그들이 자초한 측면
이 강하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라는 단꿈에 젖어 영화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지 못했다. 영
화제작가협회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표준제작규약
에 일단 기대를 건다. 협회 측은 99년 2004년 제작된
모든 한국영화의 예산·정산내용을 비교·검토, 감독
·배우·스태프 등 분야별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한편
필요 없는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영화는 망
해도 스타는 살고, 영화사는 살아도 투자자는 망하는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청사진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나올지 기대가 크다.

프로듀서들의 재무장도 요청된다. 최근 터져 나온 그
들의 "더 이상 영화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그다지 설
득력을 얻지 못하는 건 그들의 자발적 혁신 방안 없이
투자사, 매니지먼트사 등 주변 업계에 많은 책임을 떠
넘긴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총무
로를 일으켰던 그들의 새로운 각성이 기다려진다.

프로듀서의 전문화, 특화도 서둘러야 한다. 또 그런

프로듀서들을 산업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프로듀서는 영화제작사(경
영자)와 일선 프로듀서(전문가)의 일을 겸하고 있다.
사무실을 내고, 직원 월급을 주는 등의 기업가와 영화
현장을 지휘하는 '순수' 프로듀서라는 두 얼굴을 지니
고 있는 탓에 기업에도, 작품에도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할리우드의 프로듀서들은 거대 스튜디오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작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의 프로듀서들은 아예 영화사의 '월급제 직원'으로 일
하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특화된 프로듀서의 육성은
재능 있는 감독의 발굴과 천재적 배우의 양성 못지 않
게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앞으론 한국영화의 지평이 아시아, 또 (희망
이긴 하지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 아닌가. 아시아 3
국의 공동제작이 대세로 떠오르고, 할리우드에 직접 스
튜디오를 세우려는 설계도가 그려지는 세상이 아닌가.

할리우드 저명 캐스팅 디렉터인 마이클 셔틀르프는
저서 『오디션』에서 "연기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은 정신
병동에 들어 보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프로듀서들은 지금까지 스크린을 정신
병동 삼아 매진해온 반(半) 미치광이들이다. 또 그 광
기가 오늘의 총무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병
동에 들어가려는 프로듀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 집단적 광기를 창조적 에너지로 돌리는 주체, 그건
다름 아닌 프로듀서 자신들이다. 자,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